

# ‘서민의 발’까지 ... 전남 대중교통 ‘다 오르네’

### 고속·시외버스, 택시 이어 시내·농어촌버스도 인상 용역안 12%에 운송조합측 25% 요구 ... 진통 예상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택시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줄 줄이 오른다.

지난 2월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 3월에는 택시요금이 이미 인상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요금 인상을

신청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검증 용역 등을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증용역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진행 중이며 최근 중간보고 결과 12.03% 인상이 제시됐다.

운송조합 측은 현행 기본요금 1100원에서 270원(24.55%)이 오른 1370원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운송원가, 운송수입 등 기초자료를 검증해 오는 24일 최종 보고회를 열어 요금 인상 폭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측과 용역안이 큰 차이가 있어 결정과정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 지난 3월 인상된 택시요금 인상 폭이 18.5%로 버스 요금 용역안보다 높다.

그러나 택시요금이나 고속버스 등도 조합 측의 인상폭 대비, 최종 인상이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남도는 이 인상 용역안을 토대로 6월 중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인상 폭을 결정한다.

최근 요금 인상은 지난 2010년 7월 10.7%가 인상된 바 있다. 도내 각 시군의 인상된 요금 적용은 각 지자체 고시를 거쳐 7~8월경부터다.

전남도 관계자는 “운송사업조합이 요청한 인상 요율에서 12.52%를 낮춘 12.03%가 용역결과 제시됐다”며 “최종 인상 폭은 소비자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쌀직불금 농가당 13만원 올라

### 고정직불금 ha당 80만원

전남도는 매년 벼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2013년산 부터는 상향된 지원 기준에 따라 ha당 고정직불금을 10만원 증액해 8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쌀 생산량은 61가마(80kg)에서 63가마로, 목표가격은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 이후 8년만에 처음 인상된 것으로 전남도가 지난해 3월부터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연구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지난 2012년산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 직불금은 126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80억원 늘어난 144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재배농가 13만4000농가의 농가당 평균 쌀 직불금은 지난해 94만원에서 올해 13만4000원이 인상된 107만4000원으로 농가소득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산 쌀 직불금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로 대상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가운데) 일행이 본격 가동을 앞둔 신안 천사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 압해에 세계 최대 조미김 공장

### 신안 천사김(주) 공장 준공

### 올 1000컨테이너 수출

신안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출 전용 조미김 공장이 들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신안군에 따르면 21일 압해면에서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김 양식어업인과 가공업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천사김(주) 가공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신안 천사김(주)는 우리나라 조미김

생산의 일류기업인 예맛상사(대표 권동혁)가 전곡에서 으뜸인 신안 김맛에 매료돼 설립한 수출 전용 조미김 공장이다.

신안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2012년 신안 천사김 가공공장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조미김 전량은 현재 세계에서 7번째 큰 유통회사인 미국 코스트코사와 수출 계약이 체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올해에만 1000컨테이너(370억원)를 미국 현지에 공급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는 유럽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해 2000컨테이너(740억원)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신안 천사김(주)을 통해 2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500만수 이상의 마른김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회사측과 협의해 직원 채용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고 마른 김도 가능한 신안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사용토록 했다”면서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전남쌀, 7년연속 여성이 뽑은 최고명품 선정

전남산 쌀이 여성 소비자가 선택한 전국 최고 명품 쌀에 7년 연속 뽑혔다. 전남도는 제15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친환경 쌀 부문에 전남쌀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여성 1만여명의 설문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전남 쌀이 7년 연속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가 주효했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친환경 산지체험과 주부 시식체험단 운영,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 등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도 한몫했다.

전남산 쌀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도 10년 연속 최다 선정되기도 했다.

시상식은 22일 서울 컨벤션에서 선정위원장인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장필수기자 bungy@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b>18</b>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b>14</b>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b>16</b>	스카이라이프 <b>13</b>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b>20</b>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b>18</b>	해남 영암 진도 장흥 <b>16</b>	IPTV <b>18</b>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바쁜 농촌 들녘. 모내기철로 접어들었다는 ‘소만(小滿)’을 하루 앞둔 20일 강진군 병영면 상고마을 들판에서 경운기로 쟁기질을 하는 농부들 사이에 두고 예초기로 논두렁 풀을 베는 농부와 논 고르기를 하는 농부가 겹쳐 본격적인 농사철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군 제공>

# 한의학연구 전남센터 건립 속도낸다

### 전남도, 8월까지 용역 거쳐 이사회 통과 계획

한의학 표준화 연구, 한방 신약개발 등을 맡을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전남도와 동신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협약을 하고 유치에 나서며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오는 2015년말까지 국비 등 259억원을 들여 부지 1만6000㎡, 전체 면적

6000㎡ 규모로 한약자원과 한의 기술, 의료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동과 장비, 전문 연구인력을 갖춘 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와 동신대는 지난달 전남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994년 개원한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유성구)은 한의학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 한방 표준화연구, 한방 신약개발, 진단치료기술 개발, 한약 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연구·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전남센터는 한의학 연구원의 분원

역할을 한다.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자연환경과 국내 최대의 한의학 자원이 자생하는 지역이다.

전남센터가 완공되면 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광(光), IT기술을 연구원의 우수한 연구개발(R&D)역량과 접목하는 등 한약자원의 종합 허브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센터가 건립되면 광융합 한의진단과 치료 원천기술 개발, 한방식품·의약품 개발 등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이끌어내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성료

### 관객 15만명 다녀가 대박

‘2013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4일 동안 펼쳐진 이번 축제에 15만명의 관객이 찾았고 포털사이트의 지역축제 검색순위 3위에 오르는 등 ‘대박’을 냈다.

개막 첫날부터 축제장을 가득 메운 인파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힐링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렌트와 푸드코트 구역 등에서는 수십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5개 분야, 68개 단위행사로 펼쳐진 이번 축제에는 개발음식, 향토음식, 다문화음식, 관광화순 사진전 등 전시관매가 인기를 모았다.

또 힐링푸드 요리교실, 건강체험관, 힐링놀이터 등 체험행사와 전국 힐링요리경연대회, 우리가족 맛사랑 대회 등 경연·공연행사, 체조경연대

회, 전국등산대회, 고인돌 선사체험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화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열린 ‘가장 긴 점심식사’는 130m의 테이블에서 450여명에게 동시에 코스 요리와 공연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김연태 화순군 부군수는 “성공 개최는 7만 군민과 700여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 결실이다”면서 “한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지역 대표축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